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⑧ 변상도의 중국화



▶ 한줄 요약
당나라 전기 〈열반도〉는 수나라 시기 〈열반도〉와는 차이가 있다. 서역 전래 방식은 사라지고 중국 연환화 풍으로 완전히 조성됐다. 도상적으로도 원시열반경이 아닌 대승열반경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9세기 이후에는 〈열반도〉는 잘 조성되지 않는데, 죽음 이야기에 대한 대중들의 선호도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붓다 열반도상, 중국식 회화로 그려지다

앞에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즉, 북주(557~581)시대 열반도와 수(581~618)대의 열반도의 면면을 통해서 서역미술 양식이 중국전통 회화양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가 과거의 불상이나 불화를 감상하는 것은 예술 조형의 미감뿐만 아니라 그 조형을 통해서 그것과 당시 사회사상의 흐름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문화발전의 맥락을 살피는데 도움을 얻는 것이다.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는 "철학은 지식을 재료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정감을 재료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시각예술'은 그 바탕이 철학 관념의 미적 감정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상이나 불화를 통해서 그 제작자의 신앙심과 조형 이념을 살필 수 있으며, 그 출현의 문화적 배경이나 철학 · 사상 그리고 그 변화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교미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해야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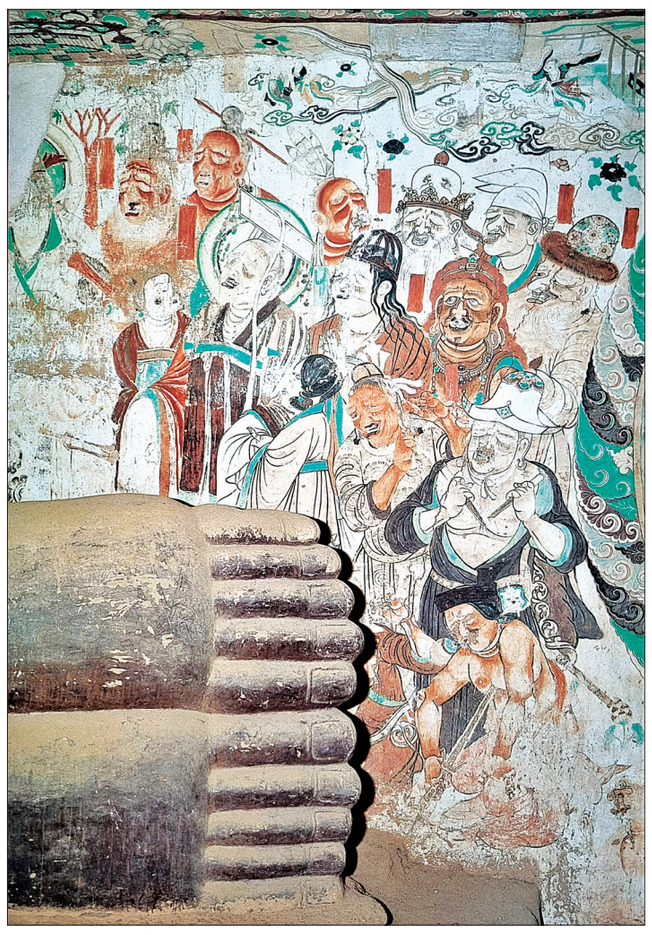
불교미술의 감상은 대략 주관적으로 유미적(唯美的), 서정적(抒情的) 감상과 객관적인, 고증적(考證的) 감상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유미 · 주관적 감상은 불교미술품을 서정시(抒情詩)를 쓰는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불화나 불상을 대하게 되면 마음속으로부터 모종의 감정이 용솟음친다. 그 감정은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으나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심(佛心)'이다. 정말로 사람들의 개성은 아주 복잡하다. 사람들의 처지와 인과관계는 서로 다르며 우리가 대하는 불상에 대한 감정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그러므로 심미적 입장에서 불교미술을 논의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불교미술의 미는 시대, 지역 풍토에 따라 그 표현의 미의식이 서로 다르므로 그것을 어떤 하나의 미적 개념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사회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사람들의 미적향수 또한 천차만별로 개인 애호의 감성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우리가 불상 조형의 역사에 대해 말할 때 다 같이 고구려 불상을 논하면서도 어떤 학자는 '고졸의 미'라 단정하기도 하며, 또 다른 학자는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석굴암 불상의 장엄함과 엄숙미를 찬탄하기도 하며 조선시대 투박한 미륵불상에 매료되는 이도 있다.

이런 감상에 대해 말하자면 이런 주관적 감동을 통해서 자기의 불상 감상의 목적에 도달했다고 만족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관적인 감동은 왕왕 불상이 객관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의의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더욱이 관광지 사찰의 고불이나 박물관에 전시된 불상을 대할 때에는 안치된 환경으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불상 고유의 사상이나 교의를 소홀히 하게 되고 다만 달콤한 옛 정서에만 도취하게 된다.



그림①. 돈황 막고굴 제158굴 〈열반경변상도〉의 보살과 제자 부분도. 중당(中唐)시기에 조성됐다.



그림②. 돈황 막고굴 제158굴 〈왕자거애도〉로 남벽 부분에 그려져 있다. 중당(中唐)시기 조성됐다.

예를 들자면 '불상의 미소'만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왕왕 사람들로 하여금 불상의 신비스런 상징미로 여기게 하며 범접할 수 없는 성스러움을 찬탄한다. 혹자는 불상의 미소와 모나리자의 미소를 비견하기도 한다. 또 이를 '명상 중 순수한 자비심 표현의 미소' 혹은 '해탈 순간의 그윽한 미소'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다.

이와 같은 감상의 방법을 '낭만적' 감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다른 한 방법으로는 '고증적' 감상법이 있는데, 이를 미술 '양식론' 연구라고도 한다. 이 감상법은 근거자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제작연대 및 원래의 설치 장소 등을 밝히는 것이다. 미술사학 대부분이 이 연구방법을 따르고 있다.

침묵하고 있는 과거의 미술품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거리감을 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그 때 우리는 거기서 불교미술은 불교의 상징물, 불교의 형상임을 우선해서 인식해야 한다. 역대 미묘한 조형의 변화과정 중에는 불교사상의 변화가 묻어있다. 그러므로 서양미술 조형개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서양미술 역시 종교적 내용이거나 인간생활을 표현한 것이겠지만 불교미술은 다만 형상의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종교미술에서 최고로 중요시하는 것은 신앙심이다. 그러므로 형상의 변천 과정 중에는 사상의 변화가 숨겨져 있으며, 사상의 변화 과정에는 시대인의 생활과 바람이 담겨져 있다.

중국으로 '대승열반경' 전파되며
돈황 석굴 '열반도' 조성에 영향
唐代전기 中연환화 방식 그려져
9세기 이후 '열반도' 제작 축소돼
죽음 대한 대중 기피 영향 받아

그래서 헤겔(G. Hegel, 1770~1831)은 인류가 창조한 문화를 '정신의 객관화'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역사는 절대적으로 정신의 지배를 받으며 그 '정신'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형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문화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당대의 불교미술은 당대의 정신을 객관화한 산물이다. 돈황의 당대 불교미술은 당대 사람들의 생명의 표현이다. 우리는 여기서 미술창조의 문화정신, 불화의 표현형식, 미술발전의 역사과정 등등의 문제를 탐구하고 이해하여 미술문화의 인식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지난 회자의 연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대 전기의 〈열반도〉는 수대의 〈열반도〉에 기초해 서역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면모로 변화했는데, 중국의 연환화 형식을 따르며 그 어느 때보다 규모가 큰 〈열반도〉로 발전하였다. 그 중 막고굴 최대의 '열반굴'이라 불리는 제158굴 〈열반도〉는 중앙에 열반상을 중심으로 좌우로 과거불인 연등불과, 미래불인 미륵불이 배치되어 있다. 즉 과거 · 현재 · 미래를 상징하는 삼세불상이 안치된 셈이다.

이 〈열반도〉는 간다라 열반도상이 중앙아시아를 거치면서 크게 변화한 것이다. 키질석굴에는 〈열반도〉가 약 50여 개로 알려져 있다. 가령, 간다라에서는 불탑이나 봉헌탑을 장엄하는데 불전도가 사용됐다면, 키질석굴에서는 석굴 안을 열반에 관한 삽화로 장엄하거나 '사리 설화도'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간다라의 열반도상은 원시열반경과 관계되지만, 키질석굴의 경우 부분적으로 원시열반경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대승열반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가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돈황석굴에서 열반도가 크게 유행하게 된 원인은 이 시기에 간행된 〈대승열반경〉의 유포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막고굴 제158굴 〈열반도〉를 보면 적정열반(寂靜涅槃)에 든 붓다를 중앙에 배치하고 곁에는 통곡하는 10대 제자와 보살 · 나한 등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배치형식은 간다라에서도 나타나났으며 돈황에서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붓다는 2단으로 된 베개 위에 오른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있으며, 왼손은 가지런하게 몸에 대고 있다. 가사는 인도식 통견이며, 붓다의 표정은 적멸에 든 상태이다.

장도에서 돌아온 가섭존자는 사라쌍수 아래 붓다의 관을 보고는 두 팔을 치켜들고 몸을 앞으로 숙여 곧 쓰러질 듯 한 자세로 아주 애통해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통곡하는 가섭존자의 표현은 〈대반열반경후분(大般涅槃經後分)〉에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은 이미 키질석굴에서 많이 나타난다. 열반한 붓다의 발에 예배하는 가섭존자의 눈은 깊이 들어가고 코가 우뚝한 인도 승려로 묘사됐다. 가섭의 좌우로 두 비구가 그를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하고 있다. 가섭 앞에는 또 한 명의 비구가 그려져 있는데, 그를 가리지 않도록 손을 아래로 뻗고 있다. 그리고 가섭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입은 크게 벌리고, 혀도 약간 내밀고 있다. 가섭의 오른쪽 아래에는 아난존자가 웅크리고 앉아 한 손으로 귀를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고 있다. 몇몇 제자들도 고통스러운 모습이다.(그림①)

화면 상부에 다섯 명의 보살을 나란히 그려놓았는데, 숙연하고 사색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침통고 애잔한 모습과는 대비되고 있다.

중당 시기에 제작된 제158굴 벽면에는 〈왕자거애도(王子擧哀圖)〉가 그려져 있다(그림②). 화면의 맨 앞에는 토번인이 애도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토번(吐蕃, 티베트족)이 돈황을 지배하는 동안 막고굴 벽화 구성의 특징 중 하나로 이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화면 앞줄에 몇 사람의 동작을 살펴보면, 화면 중간의 한 사람은 칼로 귀를 베고 있으며 그 옆 사람은 칼로 가슴을 찌르고 있다, 어떤 이는 칼로 코를 베고 있으며 맨 앞 사람은 큰 검으로 가슴을 찌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 중앙아시아 민족의 특이한 애도 관습으로 화면에서 이를 현실감 있게 잘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상해를 입히는 애도 행동은 바미얀 〈열반도〉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는 티베트 점령기의 막고굴에서 돈황을 점령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 민족, 특히 한족을 거느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대에 그렇게 많이 그려지던 큰 폭의 변상도는 귀의군시기(歸義軍時期 848~1036)에 이르러 그 세력이 약화 되었는데, 유독 〈열반경변상도〉가 갑자기 중단됐다. 그 원인은 아마도 '열반'의 의미가 아무리 신비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임으로 사람들의 선호도가 엷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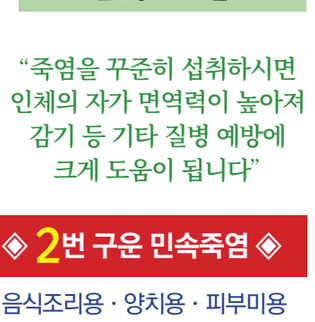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